

2025년 6월 30일

ROHM Co.,Ltd.

## 로옴의 SiC MOSFET, 토요타의 중국 시장용 신형 BEV 「bZ5」에 양산 채용 트랙션 인버터에 채용되어 주행 거리 연장 및 고성능화에 기여

로옴 주식회사의 제4세대 SiC MOSFET 베어칩을 탑재한 파워 모듈이, 토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이하, 토요타)의 중국 시장용 신형 크로스오버 BEV 「bZ5」의 트랙션 인버터에 채용되었습니다.

「bZ5」는 토요타와 BYD TOYOTA EV TECHNOLOGY Co., Ltd. (이하, BTET), FAW Toyota Motor Co., Ltd. (이하, FAW Toyota) 등이 공동 개발한 크로스오버 타입 BEV로, FAW Toyota에서 2025년 6월부터 발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파워 모듈은 로옴과 Zhenghai Group이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회사인 HAIMOSIC (SHANGHAI) Co., Ltd.에서 양산 출하를 개시하였으며, SiC MOSFET를 중심으로 하는 로옴의 파워 솔루션을 통해 신형 BEV의 주행 거리 연장 및 고성능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로옴은 2025년 내에 차세대 제품인 제5세대 SiC MOSFET의 생산 라인 구축 완료를 목표로함과 동시에, 제6세대 및 제7세대 제품의 시장 투입 계획도 앞당기는 등, SiC 파워 디바이스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바이스 성능 및 생산 효율 향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베어칩, 디스크리트, 모듈 등 다양한 형태로 SiC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SiC의 보급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사회의 실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 「bZ5」

토요타와 BTET, FAW Toyota 등이 공동 개발한 크로스오버 BEV. 「Reboot」를 컨셉으로 액티브하고 상징적인 스타일을 채용하고, Z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의 사용자를 위해 개인적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추구하였습니다. 주행 거리는 하위 그레이드 기준 550km, 상위 그레이드 기준 630km (CLTC 모드). 상하이 모터쇼 2025 개막 전날인 2025년 4월 22일에 예약 접수를 시작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HAIMOSIC (SHANGHAI) Co., Ltd.

HAIMOSIC (SHANGHAI) Co., Ltd.는 Zhenghai Group Co., Ltd. (중국)와 로옴 주식회사 (일본)가 설립한 합작회사입니다. HAIMOSIC은 주로 탄화 규소 반도체 파워 모듈의 연구 개발, 설계, 제조와 판매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 36만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4억 5000만 위안, 자본금은 2억 5000만 위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HAIMOSIC Web 사이트 (<http://www.haimosic.com/en/>)를 참조하여 주십시오.